

## 제3차 석유위기설의 실체

'90년 대의 세계에너지시장의 여건이 석유시장을 중심으로 불안한 요인을 보이면서 최근 다시 제3의 석유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제3의 석유위기설은 일면 타당한 이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우선 수요면을 보면, 놀랄 정도로 에너지 내지 石油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공산권을 제외한 자유세계의 석유소비량은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89년 1년간 하루평균 5,180만배럴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던 '79년(제2차 석유위기시)의 5,240만배럴에 필적하는 수준을 보였다. 특히 4/4분기에는 5,370만배럴에 달하기도 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적인 호황이나 민간 수요의 증가가 원인이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는 '86년 이후의 원유가격하락을 들 수 있다. 제2차 석유위기시 배럴당 42달러까지 폭등하였던 원유가격은 日本이나 구미제국 등 선진소비국이 탈석유정책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石油수요의 감퇴를 초래하여, 10달러대까지 하락하였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원칙이다.

'79~'85년 기간에 연평균 1.9%의 비율로 감소하던 石油수요는 '85~'89년 기간에는 2.6%의 비율로 증가, 착실하게 회복되었다. 그리고 '90년대에도 이 증가세는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NIES (신흥공업경제권), ASEAN, 中國 등 아시아지역, 또한 동서냉전이 해방되어 활황이 예상되는 동구권등에서 높은 수요의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면 日本에너지 경제연구소의 시산에 의하면 2000년까지의 에너지수요의 연평균 신장은 日本 2.2%, 美國 1.2%인데 비해 中國 4.1%, 東南아시아 지역은 6.5%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공급면에서는 北海나 美國대륙 등 非OPEC 지역에서 원유생산의 감소가 예상되는 외에, 소련 등 공산권

에서도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美國이 자랑하고 있는 알래스카의 거대유전 개발은 '89년 3월에 알래스카 근해에서 일어난 유조선 좌초사고로 4만 킬로리터의 원유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현지주민과 환경보호단체가 들고 일어나, 북극권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의 자원개발 제한을 가까스로 완화하려고 하던 美의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려 대폭 지연되고 있다.

美國내의 산유량은 유가의 장기하락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알래스카에는 美國본토의 매장량을 상회하는 2백 수십억 배럴의 방대한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原油자급률 향상의 마지막 카드로 기대되고 있었으나, 개별규제로 인해 점차 미국의 수입의존체질은 강화될 것이다. 이미 '89년 美國의 순석유수입량(수입량에서 수출량제외)은 하루 720만 배럴(총 소비량의 42%)에 달해, 과거 피크였던 '77년의 856만 배럴(총 소비량의 47%)을 상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밖에 서구에서는 영국령 北海유전이 피크기를 지났으며, 거액의 누적채무에 허덕이는 멕시코에서는 개발자금이 여의치 않아 생산량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소련의 생산량은 '87년의 1,249만b/d를 피크로 정체상태에 있으며, '89년에 들어와서 명백한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石油전문지인 PIW에 의하면 1~9월에 1,219만배럴로 전년 동기에 비해 28만배럴이 감소되었다. '89년 전체로는 소련 정부 발표에 의하면 1,214만 배럴로 전년대비 2.7% 감소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감소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70년대에 주요 石油의 수공법에 의한 증산을 너무 급히 추진하였기 때문에 유정이 이미 절정기를 지났고 국가재정이 위기적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石油·가스 부문에의 투자가 대폭 삭감된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 정권은 원유 생산부문의 투자를 '85년부터 4년간 10~15% 증가시켰으나, '89년에 급제동이 걸리고

'90년에는 동 부분의 국가투자가 40% 삭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90년에 들어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양 공화국을 둘러싼 민족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수도 바쿠 주변에는 이 지역이 현재에는 28만b/d의 산유량으로 총 소련산유량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지만, 금세기 전반에 「바쿠유전」의 이름으로 알려진 대규모 생산지였던 관계로 石油굴착 리그 등 유전관련기기, 부품의 생산공장이 집중되어, 전국의 60%이상의 세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분쟁이 격화되면 대규모 유전이 많은 시베리아의 생산설비 공급이 단절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300만b/d가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소련의 石油수출은 공산권과 자유세계에 대한 수출이 각각 200만b/d 정도로 예상되지만, 달러화나 구주 통화 등 hard currency를 원하는 소련으로서는 감산분의 보충으로서는 동구나 印度에 대한 원유수출을 감소시키는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동구나 印度는 中東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

또한 공급면에서는 석유제품의 수급꺾박화가 문제로 되고 있다. 선진공업국의 석유기업은 석유위기 이후의 石油수요 감퇴에 대응하여 생산설비를 대폭 축소, 정유공장의 폐쇄 및 휴·폐지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예를 들면 美國의 정제능력은 '81년의 피크시 1,860만b/d에서 '87년에는 20%가 감소되었다. 한편 石油수요는 '87년부터 증가추세로 반전되었다. 한번 폐쇄된 정유공장은 금방 재가동할 수 없으므로, 68.5%까지 떨어진 정유공장의 가동율은 상승하여 '89년에는 90% 정도까지 회복되었다. 이처럼 제품수급은 타이트해지고 있다. 현재 세계의 트레이더는 OPEC보다도 美國의 석유제품 사정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이를 테면 난방용 유류나 휘발유의 재고수준, 수요를 좌우하는 기온내지 기후, 정유공장의 가동율이나 사고발생 등이다. 예를 들면 지난 '89년말의 기록적인 한파 내습으로 난방유가 2배 정도 급등하였다. 따라서 텍사스 원유가격도 2달러정도 급등하였다. 이것은 전년동기에 비해 7달러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4년만의 최고치였다. 이처럼 이전에는 거의 재료가 되지 않았던 美國 석유제품 시장의 사소한 움직임이 국제원유시장을 리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90년대에 가장 중요한 국제적 과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지구환경문제가 원유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현재는 확실치 않다.

지구온난화 방지에는 CO<sub>2</sub>의 배출규제가 효과적이라고 하며, 지난해 11월 네덜란드의 노르드베이크에서 「대기오염과 기상변동에 관한 회의」가 열려, 늦어도 2000년까지 CO<sub>2</sub>의 배출량을 동결 시킨다는 것을 포함한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통산성 자원에너지청의 계산에 의하면, 이를 준수하려면 석탄소비를 현재보다 약 30% 감축시키고 석유소비를 약 20%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CO<sub>2</sub>가 지구온난화의 진범인지 아닌지 과학적 판단은 별도로 하고, 불확실한 것은 처벌한다는 추세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省에너지의 필요성이 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만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성에너지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에너지코스트를 높여 절약시키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점도 확실하다. 현재와 같은 낮은 원유가격 수준에서는 개인의 절약마인드에 호소한다든지, 시장메커니즘에 의지하는 등으로서 성에너지 운동을 추진하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일은 선진공업국에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에너지 코스트를 높임으로써 화석연료의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자연히 石油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렇지 않고 산유국이 감산에 의한 고가 정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石油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또한 청정 에너지인 LNG에 수요가 편중되어 LNG 가격을 상승시키고 나아가 원유가격도 상승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세계의 石油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非OPEC제국의 원유생산이 정체내지 감퇴하고, 따라서 석유위기는 다시 온다고 하나 즉시 오는 것은 아니다. 수급의 키를 쥐고있는 것은 OPEC이며, OPEC 제국의 생산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OPEC의 原油생산량은 '85년 하루 1,545만 배럴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착실히 증가하여 '89년에는 2,150만 배럴까지 회복되었다. 그래도 과거 최고를 기록했던 '77년 3,125만 배럴을 기준으로 보면 70% 정도의 수준이며, 문제는 향후의 세계의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증산여력이 어느 정도이나 하는 것이다. 지난 '89년 11월말의 OPEC 정기총회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네수엘라가 증산여력이 없어 증액분을 반납하였다. 이것으로 확실해 진것은 증산여력이 있는 나라가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등 페르시아만 5개국 뿐(이라크 샤라비 석유장관 말)이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기총회는 시종 이 5개국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석유위기 재도래설의 근거로 「OPEC 의존도의 상승」을 열거하는 사람이 많다. OPEC의 과거 최고 수준을 기록한 '77년, OPEC의 세어는 세계 전체에서 52%, 자유세계에서는 3분의 2 수준인 67%를 차지하였다. 석유시장 지배의 꿈을 갖고 있던 OPEC는 가격결정권이 수중에 들어오자 제2차 석유위기를 야기시키고 원유가격을 끌어 올렸다. 그 결과 非OPEC 산유국은 생산 의욕을 자극받아, 증산에 증산을 거듭하여 세어를 탈취·확대하였으며, 이 때문에 '85년 OPEC의 세어는 자유세계에서 40%, 전세계에서는 불과 29% 밖에 되지 않았다. 역시 OPEC도 참을 수가 없어 '86년에는 저가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세어탈환에 나섰다. 그 결과 '89년 OPEC의 세어는 자유세계에서 41%, 전세계어 34%로 다소 회복되었다. 향후 非OPEC의 생산이 정제되면, 당연히 OPEC 의존도가 높아지고, OPEC 세어는 서서히 확대될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최고기록 내지 생산량의 한계수준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지난 1월말 태평양에너지 협력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방일했던 OPEC의 스포르트 사무국장은 『금년 자유세계의 石油수요는 5,290만b/d로 과거 최고치에 달하고, OPEC 원유수요는 2,360만b/d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성장률은 3.0 ~ 3.2%로 가정하면, '95년 및 2000년의 자유세계 石油수요는 각각 5,600만 및 5,800만b/d에 달하며, 非OPEC 생산감소를 고려하면, OPEC 원유의 수요는 2,800만b/d('95년), 3,200만b/d(2000년)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이라고 말하면서, OPEC으로서의 전망을 밝혔다. 그렇게 되면, OPEC는 복권하고 다시 원유시장 지배를 기도하여 제3차 석유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석유위기재래설의 논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 단순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재의 OPEC은 과거의 OPEC와는 다르지 않을까. 첫째로는 스스로 야기한 두 차례의 석유위기에 대한 반성, 특히 제2차 석유위기는 필요없는 것이었다는 학습

효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OPEC는 과거의 석유위기가 수요감퇴를 초래하여 가격의 폭락을 야기시켰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직접 체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中東의 정치정세이다. 확실히 분쟁의 불씨가 남았으나, 국제적인 데탕트로 일축즉발이라는 위험도는 떨어져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OPEC 내부의 세력분포도의 변화이다. 석유매장량이 풍부한 페르시아만 5개국, 특히 사우디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현재, 石油수요의 꾸준한 확대와 완만한 가격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온건노선이 OPEC의 기본전략으로서 고정되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물론 「물량」을 유지하여 석유수입을 증대시키려는 페르시아만 세력에 대하여, 증산여력이 없어 고가격으로 국가수입의 증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中南美의 非페르시아만 세력은 「가격」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비주류파의 목소리는 점차 약화하여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지난 1월 중순 쿠웨이트는 새로운 생산쿼터인 150만b/d를 50만b/d 상회하는 생산을 단행하였으나, 이것은 美國의 한파·정유공장의 사고로 급등한 원유가격을 냉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물론 OPEC가 카르텔이라는 데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우리 수요자들의 OPEC에 대한 불신감이 불식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 석유위기를 일으키면 석유의 장래가 없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깨달은 어른의 집단으로 변모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감상적인 것일까.

소비국은 평상시에 石油비축을 늘려 긴급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有價가 오르면 절약에 힘쓰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유전개발에 투자할 것이다. 특히 에쎌 모은 오일달러를 흔적없이 날려버린 OPEC에 대한 굴착·개발 자금의 융자문제는 제3차 석유위기 회피의 핵심으로서 국제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동서간의 긴장완화는 石油의 산유국·소비국간의 데탕트로까지 파급될 것이다.

국가예산확득을 위해, 제품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또한 굴착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3차 위기설을 발설하는 의도도 얼마간 있을 것이다. 中國 늑대가 온다고 떠들어 대면서, 그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가 오는 것을 은근히 기다리는 것같은 석유위기 재래설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